종단 조직, 붓다 교지 실현이 목표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사람들은 종교조직이 일반조직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다름은 종교조직이 가진 탈세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세속의 종교조직도 행정 측면에서는 세속의 일반조직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조직의 행정은 인사관리와 재무관리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불교종단조직의 행정과 수행을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수행이 종교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행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종단의 행정조직을 어떻게 정비해야지 종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 불교종단이 종교조직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불교종단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편에 그쳐야 한다. 불교종단 행정조직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교종단으로서의 목적과 행정조직으로서의 방편이 전도(顚倒)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종단 행정조직이 행정 중심의 조직에서 탈피하여 수행과 전법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야함을 시사한다. 불교조직의 종교적 정체성에 맞추어 수행과 전법이 목적이 되고 행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종단 행정조직은 붓다 교지(教旨)의 실현을 행정의 목적으로 함이 타당하며, 그 목적은 수행과 전법으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불교종단 행정조직 '행정'에 방점
가톨릭 조직은 종교적 목적 강해
수행과 전법 목적을 둔 개편 필요

이와 관련해, 가톨릭의 교회행정 중앙기관인 교황청의 조직기구를 분석해보자. 교황청은 국무원(Segreteria di Stato), 부(Dicasteri), 기구(Organismi)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무원'은 국무부, 외무부, 외교인사부로 조직된다. '부'는 △복음화부 △신앙교리부 △애덕봉사부 △동방교회부 △경신성사부 △시성부 △주교부 △성직자부 △수도회부 △평신도가정생명부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 △종교간대화부 △문화교육부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부 △교회법부 △홍보부 등으로 조직된다. 그리고 '기구'는 사법기구와 재무기구로 조직된다.

불교종단의 행정조직이 총무, 기획, 재무, 인사 등과 같이 행정적 목적이 주된 구성임에 비해 교황청의 행정조직은 종교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교황청 등 타종교의 행정조직을 한국불교 종단조직의 모범으로 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교조직의 구성 목적이 행정적 기능의 수행이 아닌 종교적 역할의 실현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을 제기하기 힘들다.

이는 불교종단의 행정조직이 불교적 종교성을 지향하고 실현하도록 구성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즉, 인간이 고통을 해소하여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이룰 수 있도록 수행과 전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서를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불교종단들이 수행과 전법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편인 행정이 목적으로 전도되어 온 경향이 적지 않았다. 이제는 불교적 종교성을 실현할 부서들이 중심이 되고 행정 부서들은 이를 지원하는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계종의 전면적인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에 이런 기대를 가져본다.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이유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유마경〉 구절을 화두처럼 짊어지고 수미산 코라(산돌이)를 돈다.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보석처럼 빛나는 설산 수미산이 자리한다. 우뚝 솟은 정상위에 온갖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다 흩어진다. 우주의 중심이라는 수미산 꼭대기 중앙에 위치한 제석천 하늘에 펼쳐지는 인드라망이다. 촘촘한 그물망 마디마디 맺힌 겨자씨 크기의 이슬방울이 서로를 비추며 펼쳐내는 장엄한 실상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중무진연기이기에 수미산도 겨자씨 속에 담을 수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에 입을 다물기도 전에, 존재·시간·공간 모두 의식이 빚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양자역학의 혁명적 세계관까지 전해진다. 통념을 뒤엎는 일에 선봉이던 불교철학의 뒤를 현대과학이 바짝 따라붙고 있다. '원리전도몽상'을 현대과학이 입증해내고 있다.

세계는 오직 의식에 의해서만 알려진다. 의식은 대상을 연해서 작동된다. 따라서 세계는 대상과 의식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알려진다. 하지만 대상과 의식이 분리되는 순간 실상은 멀어진다. 즉 보고 싶은 대로, 업력이 이끄는 대로만 한정시켜 본다는 이야기다.

실상의 불가사의를 눈치 챈 양자역학자 닐스 보어와 의식만이 진실이라 믿어온 아인슈타인의 대화를 재구성해 본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양자역학 마스터'
시공간, 존재 모두 의식이 만든 산물
상상하면 이뤄진다는 희망을 찾아야

"저 수미산이 내가 볼 때만 존재하고, 뒤돌아서서 보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나?"(아인슈타인)

"어쩔 수 없지만 진실이네! 언어와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하네!"(닐스 보어)

우리는 공간이나 크기를 실재라 여긴다. 겨자씨는 작고 수미산은 크다 여긴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믿는다. 원인이 먼저고 결과는 나중이라 여긴다. 일체 존재를 실체라 간주한다. 하지만 모두가 의식이 빚어낸 개념이다. 존재, 시간, 공간이란 의식의 본질적 한계가 양산해낸 허상이다. 우리가 체감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존재=0, 시간=0, 공간=0이다. 수미산이 볼 때만 존재하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담길 수 있는 이유가, 무량겁이 지금 여기에 속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의식이 관여할 때만 입자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가사의한 실상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존재, 시간, 공간과 함께 세계도 없다는 허무주의? 아니다. 역으로 상상은 무엇이든 현실이 된다는 삶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 일체가 연기적 작용성이 명확한 실효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붓다는 양자역학 마스터다. 숨겨진 차원, 현상 너머의 실상 차원을 통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통달자다. 상상을 현실로 장엄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큰 스승이다.

두통, 복통, 설사, 어지러움 등 온갖 고산증에 시달리며 걷고 있는 이 순간 수미산 순례길은 참일까? 아니면 의식이 빚어낸 환(幻)일까? 성불의 증명이라는 백천만억 붓다의 광명으로 요동치며 빛나는 보석 같은 인드라망을 꿈꾼다.

社 說

9월 불교도 대법회, 한국불교 역량 보이자

오는 9월 23~28일 '2024년 불교도 대법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봉행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전방위로 역량 결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6일 열린 조계종 직할교구 주요사찰 회의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직할교구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동참과 결집을 요청했다. 같은 날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포교원은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각 교구본사의 협조를 구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증명하는 '2024 불교도 대법회'는 조계종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연합수계법회와 600여 스님들이 참여하는 승보공양법회, 국제 선명상대회, 국민음악회 등으로 구성된다.

진우 스님은 이번 대법회를 통해 "K-명상 세계화 선포와 함께 새로운 포교방식의 물코를 틀겠다"는 포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 스님의 말처럼 한국형 선명상의 보급은 불교 전법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현재 개신교의 경우 오는 9월 22~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복음주의 선교대회인 '로잔대회'를 열며, 가톨릭은 2027년 세계 규모의 청년대회를 준비 중이다. 각 대회의 취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종교 교세를 대내외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다.

9월에 봉행될 불교도 대법회는 한국불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대법회의 성공을 위해 종단적 역량을 집중시킬 이유는 분명하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 필요하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취임 이후 꾸준히 대내외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전국을 순회하며 종도들을 만나 소통했고, 어느 불교종단보다 빠르게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중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했다. 정관계 인사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며 종단 외연 확대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공약사항이었던 문화사업단 출범, 교육사업 확대 등도 원만하게 추진 중이며, 태고종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 선양사업들도 하나 둘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열린 상진 스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이 같은 성과들을 자평하고, 향후 방향을 짚는 자리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는 완전 빗나갔다. 상진 스님은 기자회견문 전부를 '범종단적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 운동 전개'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상진 스님은 "'종교편향불교유린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건립 반대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건립 반대 기조도 '전면적 반대'로 확대됐다.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이승만의 유시로 이뤄진 정화운동으로 비구 중심 종단이 탄생했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은 오롯이 현재의 불교가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독교 우위의 현재 종교 지형도를 만든 장본인이 이승만이기도 하다. 해원과 상생의 공간인 '광장'에 분열과 갈등을 촉발한 인물의 기념관을 지어야 하는가. 어불성설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7월 2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4하계 종도 연수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화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 등을 봉행하는 2024 하계 종도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7월 2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7월 2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